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음 12월 8일)

제17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포근한 소한... 녹아내리는 얼음

절기상 소한(小寒)을 하루 앞둔 4일 지리산 백무동 계곡 바위에 그동안 언 얼음이 녹아 내리고 있다.

선거연령 만18세 법제화 본격 추진

정치권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세 선거권'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자는 공감대 속에 유력 차기 대선 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1월 임시국회(9~20일)가 열리는 대로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들어가 4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세 선거권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며 "전 세계가 18세에게 주는 선거권을 왜 우리는 19세로 한정하는가. 우리나라 18세의 정치의식 수준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야권, 선거연령 하향 추진 민주당, 본격 공론화 나서 개혁보수신당도 의견 모아 임시국회서 개정안 통과될 듯

국민의당 또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가칭 개혁보수신당도 4일 선거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 만 18세로 전체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일 "선거권 연령을 적어도 17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표심이 진보적 성향에 가까워야 당에 우호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재 10대들은 박근혜정권에서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을 지켜보며 현 정권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이 큰 세대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말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10대들의 목소리가 커져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게 되는 만 18세 수는 60여만명(전북 2만 4,002명)으로 추산된다.

대선이 오는 5월 치뤄질 것을 가정할 때 직전인 4월 말 기준으로 만 18

세가 되는 인구수를 추려보면 62만 9629명(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수)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중 투표율을 70%로 계산하면 약 44만표, 60%일 때 약 37만표가 신규로 유입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득표 차는 108만표지만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표 차가 이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량 18세'들의 투표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의 선거연령 하향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두된다.

'201식' 거대야당이 선거권 연령 인하에 동의함에 따라 미니여당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용 기자

도, 2월 전북 방문의 해 선포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산업 시너지 창출 총력

세계태권도 선수권 등 통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 겨냥 관광객 유치 마케팅 초중고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전북도가 올해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 시너지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전북 방문의 해를 선포식을 갖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관광형태의 다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국제행사와 전북 방문의 해를 연계해 '한국 체험 1번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 도태관광 실현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 해' 3대 전략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그 첫째는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FIFA U-20 선수권대회, 2023년 세계 펜싱 유망주대회 조성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해 전북 인지도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스포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홍콩·일본·동남아 등 주요 해외시장을 겨냥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구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관광 수요자인

초중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2017 전북방문의 해' 5대 분야 30개 실행과제 추진 안을 마련했다.

5대 분야는 이벤트 행사, 특별프로그램, 국제대회,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등이다.

또한 전북도는 방문의 해 선언 및 선포식, 고향방문의 날 운영, 전국 사진공모전, 시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순회공연 등 4개 사업을 진행한다.

전북방문의 해 선언 및 선포식은 오는 2월 중 개최해 한국방문위원회와 MOU 협약 체결, 홍보대사 위촉, 공식여행사 지정, 트레블마트(세일즈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전북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출항인을 위한 고향방문의 날 운영과 전북 관광사진 공모전, 시·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순회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로 많은 관광객들이 전북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전북지역에 이를 연속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4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도내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는 전날인 3일에 이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자 올해로 두번째이다.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날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세먼지 농도에보 등급중 3단계인 나쁨 단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김민근 기자

매일 INDEX

2면 - 도민들이 바라본 전북도정

16면 -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다

본사 인사

▲오경원
 임:차장
 명:편집국 사회부

(1월 5일자)

謹賀新年

살고싶은 임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실군